

청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사 분석

김미옥*, 남윤명*, 명유진**

*충북연구원

**한국관광공사(세종충북지사)

e-mail:miok96@cri.re.kr

Analysis for Promotion of Tourism in Cheongju-si

Mi-Ok Kim*, Yun-Myung Nam*, You-Jin Myoung**

*Chungbuk Research Institute

**Korea Tourism Organization

요약

본 논문에서는 청주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잠재적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주시를 관광한 경험은 47.8%였다. 청주시가 가진 다양한 자연, 문화, 역사 자원에 비해 관광지로서의 인식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수요를 파악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 연구배경

청주시는 산과 저수지가 많아 대청호와 같은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역사적 유물이 있는 박물관이나 대표 관광자원인 직지를 바탕으로 한 인쇄관련 특색 있는 박물관이 있다. 또한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로써 외곽에는 다양한 농촌체험마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청주시는 자연환경, 문화·역사자원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청주시를 관광지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관광지로서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해 전국의 잠재적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2021.06.21.~2021.06.25.동안 웹기반 설문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내용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51.2%, 여성 48.8%였으며 연령은 20대 19.6%, 30대 17.8%, 40대 21.4%, 50대 22.8%, 60대이상 18.4%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미혼은 31.2%, 기혼은 67.6%였다. 청주시로 관광한 경험이 있나

는 질문에 47.8%만이 관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주시에서 관광을 했던 경험자를 대상으로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자연자원에 대한 탐방이 6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사 및 카페 탐방이 55.6%로 높았다. 역사와 문화지에 대한 탐방은 29.7%였는데 이는 청주의 직지심경 등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청주 관광 시 체류시간은 1일 이상이 3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2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22.2%로 많아 관광으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한다. 청주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의 만족도는 만족이상이 72.8%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광을 목적으로 청주를 방문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69.6%는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30.4%였다.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주시를 방문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을 때 '방문하고 싶은 관광시설이 없다'와 '방문해서 할 만한 체험이 없다'가 38.8로 가장 높았다.

4. 시사점

청주시는 충북의 도청소재지로 행정 중심지로 충북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이지만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도시적 매력과 농촌적 매력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자연·문화·역사적으

로 우수한 자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들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하며 관광트렌드를 파악한 관광수요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